

향장

HYANGJANG

no.662



MINIMAL
chic



CONTENTS

no. 662

2024 Apr. to Jun.

SPECIAL

02-05 TREND 올드머니 룩의 강림

06-15 REPORT 미니멀리즘의 재림

16-21 PRODUCT 기초부터 탄탄하게. 베이지 스킨케어템

22-25 MAKEUP 미니멀 룩과 어울리는 메이크업

PRODUCT

26-31 ZOOM IN 헤라

32-33 FOCUS 설화수 상백선 라인

34-35 FOCUS 홀리추얼 프로 리프팅 앤 퍼밍 프로그램

36-37 FOCUS 프리메라 리페어링 세라캡슐

UV 프로텍터 톤업 프라이밍

HEALTH & LIFE

38-41 ISSUE 건강과 재미까지 챙기는 다이어트 팁

42-45 INTERIOR 트렌디한 인테리어 리빙 아이템

46-47 PLACE 건축이 아름다운 카페

NEWS

48-49 아모레퍼시픽의 헤리티지를 한눈에

50-51 나만을 위한 맞춤 화장품

ETC.

52-53 A-DIT SHOP 에디터가 꿈은 최애템

54-55 REVIEW 전문가가 검증한

홀리추얼 프로 리프팅 앤 퍼밍 프로그램

56 ITEM 놓치지 말아야 할 뷰티 아이템

since 1958

<항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7년간 662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발행일 2024년 4월 1일 발행 통권 662호
발행인 김승환 편집인 홍재욱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품 문의 080-023-5454 제작 문의 뉴커머스 콘텐츠팀

인쇄 (주)태신인쇄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이성진
디자인 이슬지

www.apgroup.com

✉ hyangjang@mckorea.com

© copyright 2024 amorepacific

※<항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매거진입니다.

special trend

MINIMALISM

지난해부터 시작된 '조용한 럭셔리' 트렌드가 올해 역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가운데, 미니멀리즘에 주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단순히 심플한 디자인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

editor LEE SUNG JIN



FERRAGAMO

Minimalism is Back!

미니멀리즘을 태그한 록

+46%

100

1990년대를 태그한 록

+42%

100

브랜드 로고 태그가 붙은 록

-52%

-100

2024년 봄/여름 패션쇼 이미지를 모아둔 한 검색 엔진 사이트에 따르면 '미니멀리즘'과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1990년대' 태그가 붙은 록이 급증했고, 미니멀하지 않은 브랜드 로고 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성이 높고 세대를 물려 입어도 촌스럽지 않은 아이템이 주목받는다는 점에서 올드머니 록과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의 아이템으로 최대한 시크해 보이는 것이 포인트다. 올드머니를 흉내내다 지친 사람들이 적절한 소재와 컬러, 간결한 디자인의 옷을 고르며 미니멀리즘이 트렌드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1990년대인 이유

캘빈 클라인, 질샌더, 프라다. 1990년대 중후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세 브랜드는 모두 단순한 디자인의 옷으로 모던하고 멋진 매력을 완성했다. 이들의 성공을 기반으로 당대 디자이너들은 너도나도 심플한 옷을 선보였고, 1990년대는 미니멀리즘의 전성기를 맞았다. 당시 경기 침체로 실용성과 기능성을 갖추면서도 세련되고 시크한 디자인의 옷이 유행했는데, 이는 불안정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소비를 절제하는 지금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2024년을 미니멀리즘의 제2전성기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MINIMALISM ICON



최근 트렌드 기사에 종종 회자되는 이름이 있다. 바로 올해 사망 25주기를 맞은 캐럴린 베셋 케네디다. 미니멀리즘 패션의 대표 주자 격인 그는 공들이지 않은 듯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멋을 낸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과도한 레이어링과 액세서리를 꺼렸다. 그는 청바지, 셔츠, 블레이저 등 누구나 갖고 있을 범용적인 옷만으로도 시크한 멋을 완성했다. 이런 그의 패션 철학은 존 F. 케네디 주니어와 컴벌랜드섬에서 올린 결혼식만 봐도 알 수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웨딩 데이. 신부인 그가 선택한 것은 실크 슬립 드레스에 마블로 블라닉 힐이었으니까.



Minimal-luxe

인테리어 키워드로 떠오른 미니멀릭스 역시 미니멀리즘을 대변하는 스타일 중 하나. 미니멀(minimal)과 럭스(luxe)의 합성어로,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공간이 아니라, 디자이너나 건축주의 기호를 적극 반영해 검소하지만 자신만의 화려한 미감을 갖춘 공간을 뜻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재료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길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고 자연의 색에 가까운 내추럴 톤 팔레트와 돌, 나무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MAISONETOBJET

Minimal life

무작정 버리기 힘든 당신을 위해 준비한 미니멀리즘 인스타그램 계정들.



@theminimalists
 <미니멀리즘: 비우는 사람이 이야기>를 펴낸 조슈아 필즈 밀번과 라이언 니커디머스가 운영하는 계정. 그들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미니멀리즘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다.



@bemorewithless
 미니멀리스트의 옷장 프로젝트로 시작된 계정. 옷장을 비우는 것은 물론, 휴대폰을 적게 보는 디지털 디톡스와 잘 쉬는 방법 등 복잡한 삶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가득하다.



@minimalistbaker
 10가지 이하의 재료, 하나의 볼로 30분 이내에 만들 수 있는 레시피 등 간단한 요리를 소개하는 계정. 일관된 피드와 쉬운 방법으로 팔로어가 2백1만8천 명에 이른다.

MUST-HAVE ITEM



GUCCI



FERRAGAMO

모노톤의 블레이저
 이번 미니멀리즘 트렌드의 가장 큰 특징은 테일러링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정교하게 재단하고 잘 봉제한 고급 재킷이 트렌드로 떠올랐다. 이제 화이트, 블랙, 그레이 등 모노톤의 오버사이즈 재킷을 하나쯤 구비해야 할 것 같다.

빅 백
 지난해부터 조금씩 보이던 빅 백이 드디어 트렌드의 정점에 올랐다. 장식이 단정하거나 한 가지 소재로 만든 명료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옆구리에 끼거나 크로스로 메는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빅 백이 대거 출시되고 있으니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것을 골라보자.



화이트 셔츠
 미니멀리즘의 대표 주자인 화이트 셔츠가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며 이번 시즌 런웨이에 종종 등장했다. 트렌디한 이미지를 원한다면 오버핏의 화이트 셔츠에 블랙 팬츠나 펜슬 스커트를 매치해보라.



스트레이트 진
 한동안 서랍장에 넣어둔 데님 팬츠를 다시 꺼낼 때다. 1990년대가 트렌드의 중심에 서면서 폭이 적당히 넓은 스트레이트 핏 데님 팬츠가 다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기 때문. 블레이저와 코디하면 클래식하고, 레더 소재 상의와 매치하면 시크하다.



MAX MARA



TOVE



special report



최소한의 제품으로 우아하고 편안하게 꾸미는 틱톡의 #cleangirlaesthetic
챌린지는 메가트렌드 중 하나다. 미니멀한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지만,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단연 뷰티. 윤기가 흐르는 피부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주목받으며 건강한 피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photographer O A RANG(안률), OH HYUN SANG(오희승) editor LEE SUNG JIN

#clean_girl_aesthetic



Check List

피부 수분 지수 체크 리스트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 해당한다면 피부 건조 주의보에 대비해야 한다!

- 화장품을 바꾸면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긴다.
- 날씨에 따라 피부 컨디션이 많이 변한다.
- 각질이 일어나고 푸석해 보인다.
- 피부 표면은 번들거리는데 피부 속은 당긴다.
- 피부톤이 칙칙하고 눈 밑이 어둡다.
- 세안 직후엔 건조한데 좀 지나면 번들거린다.
- 피부가 외부 자극에 민감하다.
- 세안 후 화장품을 바르지 않으면 금세 당긴다.



촉촉한 피부의 건강한 광채

윤광, 물광, 꿀광 등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광채 나는 피부를 향한 열망만은 변함없었다. 사실 이름만 다를 뿐 근본은 같다. 수분이 꽉 차 촉촉한 상태로 빛을 잘 반사해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로 보이는 것. 매년 봄을 맞을 때마다 피부가 탁해 보이고 자주 붉어지며 피부결이 거칠어 무엇을 발라도 푸석해 보이는 통에 고민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촉촉하게 만드는 데일리 수분 케어에 집중하자. 피부가 건조하면 어떤 스킨케어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홀리추얼 피토 리쥬브네이팅 컨센트레이트 강력한 식물 에너지를 품은 피토케미컬이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개선하고, 각질층 10층까지 보습해 속부터 물이 차오른 피부로 바꿔주는 탄력 수분 피토 세럼.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붉어진 피부가 진정되며 탄력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0ml, 7만원.





새로 태어난 듯 탄탄한 피부

언젠가부터 사진 속 얼굴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면 피부 세포가 노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급하게 안티에이징 크림을 발라봐도 상태가 쉬 호전되지 않아 더욱 안타깝다. 해결책은 노화된 세포의 활동력을 개선해 피부 바탕을 건강하게 다지는 것. 안티에이징의 활로를 열고 경직된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어줄 제품으로 기초 스킨케어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1 설화수 진설수 진생베리의 무궁무진한 안티에이징 활력 성분으로 안티에이징의 활로를 열어 새롭게 태어난 듯 빛나는 피부로 바꿔주는 피부 생명수. 150ml, 14만5천원. **2 설화수 진설유액** 노화로 경직된 피부 세포를 회복시켜 피부를 젊게 복구하고 촉감을 개선하는 피부 생명 유액. 125ml, 16만5천원.



3

진정한 클린 피부

#클린겔에스테틱이라고 해서 진짜 생얼을 포스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 여자들은 다 안다. 다만 베이스 메이크업이 한결 얇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피부를 탐스럽게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 가장 공들여야 하는 과정은 클렌징.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가 피부를 괴롭히는 봄철에는 메이크업은 물론 미세먼지와 피부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 헤라 딥 클렌징 오일 워터프루프 메이크업과 모공 속 블랙 헤드, 피지까지 말끔하게 없애준다. 세안 후에도 피부가 촉촉하다. 225ml, 5만원. **2 헤라 리프레싱 클렌징 폼** 셀룰로오스 비드와 3-AHA Complex를 함유해 묵은 각질까지 더 확실하게 제거해주는 딥클렌징 폼. 세안 후 미끌거리는 느낌 없이 산뜻하다. 160g, 3만5천원. **3 헤라 메이크업 리무버** 워터프루프 마스크라, 아이라이너, 짙은 립스틱 등 포인트 메이크업을 말끔하게 지울 수 있는 워터 제형의 리무버. 125ml, 3만8천원.



Q 건강한 피부를 위해 기억해야 할 클렌징 공식



자극하지 않는다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클렌저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씻어내는 것이 원칙. 매끄러운 오일 형태나 거품이 폭신하게 이는 클렌징 폼을 사용하고, 손에 힘을 뺀 상태로 문지르며 씻어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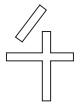
이중 세안은 기본

자외선 차단제만 바른 날이라 할지라도 이중 세안을 추천. 메이크업을 했다면 눈과 입술 전용 클렌저까지 더해 꼼꼼히 씻어내자. 같은 클렌징 폼으로 두 번 세안하는 방법도 괜찮다.



물기 제거도 자극없이

클렌저를 씻어낼 때에는 손에 물을 가득 퍼 올려 얼굴에 문지르지 말고 끼얹는 기분으로 세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뒹을 때도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 눌러 물기만 없앤다.



진정에서 시작되는 건강한 피부

피부가 번들거리거나 붉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날. 에스테틱을 찾아 피부를 진정시키고 묵은 각질과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지만 여의치 않을 때가 많다. 이럴 때를 대비해 홈 케어 제품을 구비해두자. 피부 진정과 정화는 때를 놓치면 트러블이나 노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노하우를 담은 제품으로 문제를 느낀 그날 바로 해야 한다.

홀리추얼 클린테라피 파우더 마스크 피부 관리 전문가의 30년 노하우를 담은 피부 진정과 피지 제거 등의 정화 효능을 극대화한 한방 파우더 마스크. (10ml+5g)×8ea, 11만5천원.

5

화사한 피부 보호막

사진에서는 화사하고 매끈한 피부가 더욱 빛을 발한다. 얼굴을 화사하게 밝히는 톤업과 거친 피부결을 가리는 프라이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데는 이런 이유도 한몫할 터. 가볍고 오래가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니즈도 꾸준하다. 이런 요구에 부응해 개발한 것이 바로 톤업 & 프라이밍 선크림. 바르는 즉시 피부 톤을 한 단계 밝히고 피부결을 정돈해 얇고 고른 makeup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포인트다.

프리메라 리페어링 세라캡슐 UV 프로텍터 톤업 프라이밍 어떤 makeup도 차 붙게 만들어주는 SPF 50+PA++++의 makeup 부스팅 선크림.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투명도와 윤기를 개선한다. 40ml, 3만4천원.





볼륨감 있는 도톰한 입술

나이가 들수록 입술의 형태와 주름, 톤이 모두 변해 인상마저 달라진다. 도톰하고 윤기 나는 입술이 동안의 척도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부작용이 많은 필러 대신 시도할 만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 립 제품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수분으로 볼륨을 채우고, 바르면 바를수록 입술을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립 제품은 그 어떤 안티에이징 제품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My Lips, My Choice!

니즈에 따라 맞춤형 립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

도톰하고 윤기 있어 보이고 싶다면



프리메라 레티놀 볼륨 립 세럼 로지, 베어

입술에 수분과 식물 유래 유사 콜라겐을 꽉 채워 도톰하고 탱글탱글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아모레퍼시픽 최초의 레티놀 립 케어 제품. 14g×2, 7만원.

생기를 원한다면



설화수 퍼펙팅 립컬러

92%에 달하는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해 바를수록 입술을 건강하게 만들고 맑은 컬러로 입술을 채워주는 립 컬러. 3g, 4만5천원.

하루 종일 수분감을 유지하고 싶다면



설화수 윤조립밤

인삼씨오일로 입술 상태를 개선하고 수분 볼륨을 더해 24시간 팽팽하게 유지해주는 립밤. 3g, 4만5천원.



입체적인 얼굴선

지난해와 올해 찍은 사진을 비교했을 때 얼굴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 느껴진다면, 라인 관리에 돌입해야 한다. 턱선이 둥글게 처지며 무너지거나 볼이 꺼지고, 이마와 미간을 비롯해 눈과 입 주변에 노화로 인한 선이 깊어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것. 탄력을 높이는 동시에 처진 부위를 리프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이런 얼굴선이 고루 바로잡히기 때문에 제품 하나를 고르더라도 신중해야 한다.

1 아모레퍼시픽 라인에이징 코렉터 30년 된 차나무 뿌리의 힘으로 피부의 탄력을 다져 윤곽선은 살리고 주름 선은 없애주는 코르셋 세럼. 30ml, 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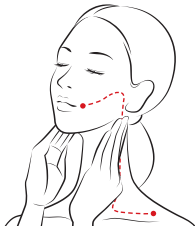
2 아모레퍼시픽 라인에이징 리모델링 크림 리프팅, 펴밍 성분과 타이팅닝 베일 제형으로 피부를 팽팽하게 당기고 늘어선 얼굴선을 끌어올려준다. 50ml, 28만원.

*5월 출시 예정: 라인에이징 리차ؤول 2종 세트 38만원 (코렉터 30ml, 크림 30ml).



Beauty Tip

탄력을 높이고 부기는 줄여 얼굴선을 예쁘게 가다듬어줄 마사지 방법.



입체적인 얼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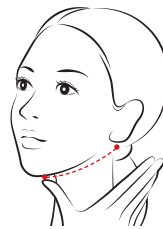
양손을 입가에 대고 광대뼈를 향해 비스듬히 쓸어 올린다.

- ① 광대뼈 아래 ② 귀 앞 ③ 쇄골 순서로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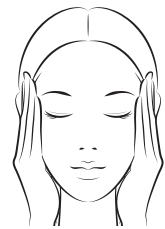
눈가 붓기 가라앉히기

- 양손 중지와 약지로 ① 눈꼬리 아래 ② 눈머리 앞 ③ 눈썹 ④ 눈두덩이(중지만 이용) ⑤ 눈썹 뼈 ⑥ 눈꼬리 방향으로 쓸어준다.



이중 턱 없애기

엄지를 턱 중앙의 밑에 대고 얼굴선을 따라 눌러 귀 뒤쪽까지 연결한다.



페이스 라인 정돈

양 손바닥을 턱에 대고 힘을 주면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끌어올린다. 양손으로 얼굴을 3초간 눌러 마무리한다.



원래 좋은 피부처럼

눈에 띄는 모공과 거친 피부결은 사진을 망치는 주범. 이를 숨기려 프라이머를 쓰고 싶지만, 피부가 건조해서서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제품에 따라 makeup이 뭉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해결책은 파우더 타입의 프라이머. 피부에 얇게 발려 모공과 피부결을 가려주는 제품만 있으면 원래 좋은 양 매끈한 피부로 연출할 수 있다.

헤라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 클레이 파우더를 얇게 코팅해 뭉치지 않고 얇게 발리며 착 붙어 매끈한 피부로 정돈해주는 제품. 24시간 유분을 컨트롤하고 수분은 지켜준다. 8.5g, 6만원.

special product

BACK *to* BASIC

건강한 피부로 다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지만 기본에 충실한 것. 검증된 베이직 아이템으로 매일 정성스레 관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스킨케어 방법은 없다.

photographer **PARKJAEYONG** editor **CHOIHYANGJIN**



SULWHASOO

설화수 윤조에센스 6세대, 90ml, 14만원

윤조에센스가 한층 더 진화했다. 세안 직후 얼굴이 당기면서 시작되는 피부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 각질층 10층까지 수분 에너지를 층층이 전달하고, 피부 효능 사포닌을 강화한 림파낙스™와 설화수 마스터 콤플렉스™가 외부 자극과 노화에 맞서 피부를 보호해준다. 설화수를 처음 만나는 고객을 위한 윤조에센스와 백삼팩, 자음생크림으로 구성된 '나의 첫 설화수' 패키지도 선보이니 성년이 된 딸이나 고마운 사람을 위한 선물로도 좋을 듯.

#매일차오르는윤빛피부

#퍼스트케어

#10가지노화징후개선

“고급스럽고 모던한 패키지와 업그레이드한 성분으로 한층 새로워진 윤조에센스. 친숙한 제품이지만 한동안 바르지 않다가 다시 바르면 그 진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메이크업리무빙클렌저

#오일에서폼으로

#피부장벽지키는클렌저

“지칠 대로 지친 날은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잠들고만
싶는데, 프리메라 퍼펙트 오일
투 폼 클렌저를 쓰면 그럴
일이 없다. 한 번에 포인트
메이크업부터 초미세먼지까지
모두 세정해 귀찮은 과정을
확 줄여주는 제품이다.”

<마리골레르> 뷰티 에디터 이영주

PRMR

프리메라 퍼펙트 오일 투 폼 클렌저.
390ml, 4만8천원.

피부의 노폐물이나 미세먼지는
모공을 넓게 만들고 피부 장벽을
약화해 노화를 앞당기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꼼꼼한
클렌징은 건강한 피부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프리메라 퍼펙트
오일 투 폼 클렌저는 오일 상태의
제품을 덜어 얼굴에 부드럽게
문지르며 메이크업을 녹여낸 뒤, 물로
세안하면 폼으로 변해 한 번에 이중
세안이 가능한 스마트 제품. 포인트
메이크업은 물론, 초미세먼지를
91.5% 제거하고 블랙헤드를
32%나 감소시켜 세안 후 얼굴이
산뜻하면서도 매끈하다.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수EX & 자음생유액EX.

각각 150ml, 10만원/ 125ml, 10만5천원.

고효능 에센스와 앰플, 크림을 바르는 것도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시작점은 언제나 피부에 꼭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스킨과 에멀전이다. 설화수 자음생수EX와 자음생유액EX는 설화수의 대표 안티에이징 라인인 자음생의 스킨과 에멀전으로 인삼의 풍부한 수분과 영양 성분을 오롯이 응축한 증삼수™에 설화수 인삼 기술의 결정체인 진세노믹스™를 더해 피부 바탕을 건강하게 다져준다.



#진세노믹스™

#강력한피부자생력

#탄탄한기초

“바쁘고 귀찮으면 스킨과 로션 단계를 건너뛰고 에센스나 크림만 바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설화수 자음생수EX를 정성스레 흡수시키고, 자음생유액EX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바르면 다음에 바르는 에센스나 크림의 효과가 배가되는 느낌이 든다.”

〈마리끌레르〉뷰티 에디터 김상은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퍼펙팅 클래식. 60ml, 27만원.

설화수 자음생크림 퍼펙팅 클래식은 설화수 인삼 과학의 결정체인 진세노믹스™와 진생펩타이드를 함유해 놀라운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하는 크림. 단 48시간 안에 콜라겐을 복구해 속부터 짙은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고, 3D 리프팅 효과로 피부를 촘촘하게 끌어올리며, 치밀도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완화해 피부 노화를 막는 방어막 역할을 독특히 수행한다.



#진세노믹스™

#3D리프팅

#콜라겐복구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아침 손끝에 닿는 피부의
느낌부터 다르다. 피부가 속부터 탱탱하고 보들보들 유연해진
느낌이라 꾸준히 바르게 된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PRMR

프리메라 맨 인더핑크 에이지 리페어
올인원 에센스. 150ml, 3만7천원.

남자 피부에도 기초 스킨케어
중요하다. 게다가 남자 피부는 여자와
달리 피지량이 많고 수분량은 적어
피부 장벽이 훨씬 쉽게 무너지며,
노화가 한번 시작되면 견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장벽을 튼튼히 다지는 스킨케어가
필수다. 프리메라의 맨 인더핑크
에이지 리페어 올인원 에센스는
스킨과 세럼 기능을 동시에 하는
올인원 제품으로 남성의 스킨케어
루틴을 고려했을 뿐 아니라 수분
공급과 동시에 무너진 피부 장벽을
빠르게 복구하고 탄력을 강화해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피부로 개선해준다.



#슬로우에이징

#간편한남성스킨케어

#남성선물추천

“피지가 많은 편이라 세안 후 스킨케어를 거르곤 했는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며
피부가 푸석해지고 잔주름이 확연히 눈에 띄어 지금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빠뜨리지 않고
프리메라 맨 인더핑크 에이지 리페어 올인원 에센스를 챙겨 바른다.”

포토그래퍼 박재용

HOLITUAL

홀리추얼 래디언스 리선편이싱 필.
(3ml×2ea)×12매, 4만8천원.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주기적인 각질 제거가 필수. 홀리추얼 래디언스 리선편이싱 필은 집에서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매끈하고 광채 나는 피부로 가꾸는 2단계 트리트먼트 제품으로 민감한 피부도 자극 없이 간편하게 유리알처럼 매끈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로 가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 step 1 PHA 필링 패드는 불필요한 각질만을 타기팅해 부드럽게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step 2 앰플 패드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 건강한 피부로 되돌린다.



#홀트리트먼트필수템

#유리알피부

#저자극각질케어

“나의 스킨케어 필수템. 피부가 칙칙하고 푸석해 보일 때,
패드로 닦아내는 것만으로 매끈한 결과
화사한 톤의 피부로 되돌릴 수 있다.”

뷰티 컨텐츠 디렉터 이성진

special makeup

simplicity is
THE BEST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다. 립스틱 하나와 깨끗한 피부
그리고 메이크업 에센셜 제품만으로 완성한 노블 페이스.

editor **CHOI HYANG JIN**

PINK MUSE

LOOK 1

시대가 달라져도 대한민국 여성이 가장 사랑하는 컬러, 핑크. 2022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32%가 가장 선호하는 컬러로 분홍색을 꼽아 1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같은 핑크라도 트렌드에 따라 변주 되니, 오래된 핑크 립스틱을 버리고, 트렌디한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115 노 프라블럼을 구비할 것.

1 헤라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 SPF20/PA++. 30g, 7만원.

2 헤라 퀴드 아이 컬러. #02 델리케이트 로즈, 10.5g, 6만5천원. **3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115 노 프라블럼, 3g, 4만5천원.



STEP 1

헤라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 섬세하고 실기한 피부를 완성한다.



STEP 2

눈에는 헤라 퀴드 아이 컬러 #02 델리케이트 로즈 중 로지 브라운 아이샤도를 눈두덩이 전체에 펴 바르고 쌍꺼풀 안쪽과 언더 아이래시 라인에 담 브라운 컬러를 아이라인처럼 부드럽게 스며지해 음영감을 더한다.



STEP 3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115 노 프라블럼을 물들이듯 얇게 펴 바르고, 뺨 중앙에도 살짝 터치한 뒤 넓게 퍼뜨려 트렌디한 블러셔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CLASSIC RED

LOOK 2



레드 립스틱은 여자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그리고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아이템. 하지만 선명한 레드 립스틱을 평소엔 바르기 부담스러운 화장대 깊숙히 넣어두고만 있었다면, 오래된 레드 립스틱을 버리고 헤라 루즈 클래식 #301 서울 레드를 구비할 것. 입술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톤이 살짝 다운된 레드 컬러라 데일리리 사용하기에도 좋으니까.



1 헤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SPF34/PA++, 본품 15g+
리필 15g, 7만4천원.

2 헤라 쿼드 아이 컬러 #01
클래시 코랄, 10.5g, 6만5천원.

3 헤라 루즈 클래식 #301
서울 레드, 3.5g, 5만원.



STEP 1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 SPF50+/PA++++을 얼굴 전체에 도둑하게 펴 발라 자외선 차단과 동시에 피부 톤을 화사하게 밝힌 뒤, 헤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을 뺍 중앙부터 바깥 방향으로 펴 발라 화사하고 결점 없는 피부를 완성한다.



STEP 2

헤라 쿼드 아이 컬러 #01 클래식 코랄 중 펄이 은은하게 감도는 코랄 컬러 아이샤도를 눈두덩이와 언더아이래시 라인에 바른 뒤, 소프트 쉬머 브라운 컬러를 눈꼬리 끝부터 안쪽으로 블렌딩해 눈가에 음영감을 더한다.



STEP 3

입술에 헤라 루즈 클래식 #301 서울 레드를 바른 뒤, 입술 선을 부드럽게 퍼뜨려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은 레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같은 컬러 립스틱을 뺍에 연하게 발라 매력적인 홍조를 더해볼 것.

PHOTOGRAPH: 김복준(인물), 오형상(제품), MODEL: 이라, MAKEUP: 김동원박지영(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박정대, STYLING: 박미경



서울리스타의 뷰티 HERA

K-뷰티의 상징이자 동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잘 캐치해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선보이는 단 하나의 브랜드를 꼽으라면 단연 헤라다. editor **CHOI HYANG JIN**

이제 전혀 신기하지 않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 된 K-뷰티 열풍. BB 크림, 쿠션 등 지금은 뷰티 루틴의 하나로 완전히 자리 잡은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개발해 전 세계 여성들의 화장대와 파우치를 점령했으며,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은 믿을 수 있고 트렌디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대표 브랜드 중 하나가 헤라다. 1995년에 론칭한 헤라는 당시 핫 이슈이던 식물 줄기세포에서 영감을 받아 셀 사이언스 기반의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이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그 뒤로 꾸준히 셀 사이언스 기술을 연구해 최첨단 성분을 화장품에 담았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헤라를 대표하는 스킨케어 라인인 시그니야다. 론칭 후 헤라는 화이트닝, 맨 케어 등 카테고리를 확장하다 2000년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영입해 메이크업 라인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 역사적인 UV 미스트 쿠션을 내놓았다. 아모레퍼시픽의 한 연구원이 주차 도장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쿠션'이 뷰티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었다. 간편한 사용법에 파운데이션 포물러를 머금은 담지체와 에어셀 퍼프가 만들어내는 밀착력, 그리고 섬세한 피부 표현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여성을 사

로잡았고, BB 크림의 뒤를 이어 K-뷰티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헤라는 론칭 직후부터 동시대 한국 여성들의 뷰티에 대한 니즈를 가장 잘 반영하며 트렌드를 주도해왔다. 이런 헤라의 가치를 가장 잘 담아내는 단어가 브랜드의 뮤즈이자 슬로건인 '서울리스타'다. 고즈넉한 한옥과 빌딩 숲이 공존하는 멀티버스적 공간인 서울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해가며, 그것을 시대정신에 따라 발전시켜가는 사람들을 헤라는 '서울리스타'라고 명명했다. 헤라의 글로벌 앰배서더인 블랙핑크 제니는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과 창의성으로 음악,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에 없던 결과물을 선보이는 대체 불가한 존재로, 서울리스타의 영감의 원천이자 서울리스타 그 자체인 아티스트다. 헤라는 이런 서울리스타의 다채로운 아름다움과 독특한 취향을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론칭 이후 지금까지 29년간 헤라는 늘 한발 앞선 새로운 해석과 시도로 지금도 여전히 트렌드의 가장 전위에서 삶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주도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가장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사는 페르소나를 대변해온 헤라

1995	2005	2010	2015	2019 -
MYSTERIOUS GODDESS	ABSOLUTE BEAUTY	CONTEMPORARY CHIC	EXCEPTIONAL BEAUTY	JUST ME, UNDEFINED
SENSUAL LUXURY CHARISMA			PROFESSIONAL FEMININE	CONTEMPORARY BEAUTY OF SEOUL



HERA

HERA

HERA

HERA

HERA
HERA



HERA HEROES

지금, 서울리스타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줄,
그리고 앞으로 트렌드를 이끌어갈 헤라의 히어로 제품을 소개한다.



대체 불가 국민 쿠션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SPF34/PA++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라는
경이로운 판매고와 각종 뷰티
어워드에서 1위를 차지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이 제품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이유는 깃털처럼
가볍게 발리면서도 강력한
고정력으로 살짝만 터치해도
24시간 편안하게 완벽한 피부로
유지해주는 독보적인 사용감
덕분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극심하던 때, 마스크에 잘
묻어나지 않는 견고한 밀착력과
지속력으로 더욱 큰 사랑을 받기도
했다. 본품 15g + 리필 15g,
7만4천원.

*출시 이후 국내외 전 경로 누적 판매
수량 기준(2017년 3월~2024년 1월)

도시 유해 환경 디펜스

UV프로텍터 멀티디펜스
SPF50+/PA++++ &
톤업 SPF50+/PA++++

자외선뿐 아니라 대기 속 미세먼지와 블루라이트에 상시 노출되는 서울리스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개발한 선케어 라인. UVA와 UVB뿐 아니라 적외선과 초미세먼지, 블루라이트 등 도시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헤라 UV프로텍터 라인의 강점. 촉촉하고 윤기 나는 수분광을 연출해주는 멀티디펜스, 백탁 현상 없이 맑은 생기를 부여하여 탐스러운 복숭아빛 피부로 완성해 주는 톤업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힌 점 또한 매력적이다. 각각 50ml, 4만5천원.

셀 사이언스의 정수

시그니아 코어 리프팅 세럼 &
바이탈 리프팅 크림

론칭 당시부터 지금까지 식물세포를 연구해온 헤라의 기술력의 결정체가 헤라 시그니아 라인이다. 헤라는 강한 생명력의 상징인 수선화 식물세포를 연구하면서 세포 간 신호 전달 활성 성분인 엑소좀을 발견하고, 이를 무려 11억 개나 더한 나르시스 스템-코드 액티브™를 개발했으며, 여기에 6종의 펩타이드를 배합한 멀티-펩타이드, 피부 보습 인자와 유사한 더마릭서 성분을 더해 생기와 탄력을 강화하는 헤라 시그니아 코어 리프팅 세럼과 바이탈 리프팅 크림을 선보였다. 세럼 50ml, 24만원/ 크림 60ml, 30만원.



은은한 수분광의 완성

스킨 래디언트 글로우 쿠션
SPF40/PA++

촉촉한 수분감과 맑은 커버 효과로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를 완성해주는 쿠션. 섬세한 입자가 피부에 극도로 얇게 밀착해 여러 번 덧발라도 묻치는 현상 없이 커버 효과를 더하는 빌더블 커버 쿠션이다. 여기에 더해 히알루론산 5종을 포함해 스킨케어 성분을 무려 64%나 함유해 촉촉하고 24시간 유지되는 수분 글로우를 피부에 선사한다. PCR 50%™를 포함한 친환경 패키지로 디자인으로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서울리스타의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까지 반영한 제품이다. 본품 15g + 리필 15g, 6만8천원.



**재활용 플라스틱, 쿠션 외용기에 한함.

블러 효과로 더 예쁜 입술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 리퀴드

베일을 감는 듯 부드럽게 발리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듯 편안하게 피팅되는 매트 립 메이크업 제품. 속은 촉촉한데, 겉은 보송하게 마무리되고 블러 효과로 입술 주름을 매끈하게 매워 더 예쁜 입술로 완성해주는 데다 피부 톤에 상관없이 잘 어울리는 MLBB 컬러로 구성해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올해 3월, 업그레이드해 선보이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은 더 편안한 사용감과 트렌드를 반영한 컬러로 무장했으며,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는 입술뿐 아니라 볼이나 눈에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유즈 제품이다. 립스틱, 3g, 4만5천원/리퀴드, 5g, 4만5천원.



24시간 지속되는 매끈한 실키 스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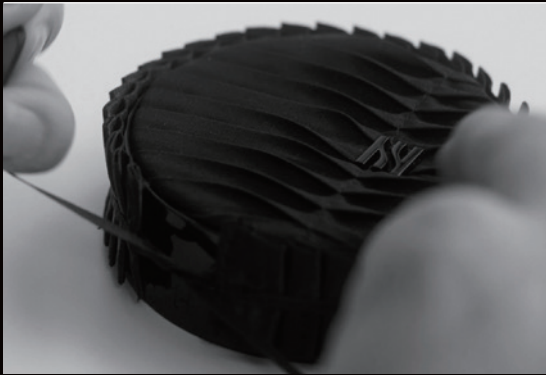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 SPF20/PA++

이름 안에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모두 담고 있는 헤라의 대표 파운데이션. 고밀도 커버력이 하루 종일 지속돼 이름처럼 실키같이 부드럽고 매끈한 피부를 24시간 유지해주는 제품이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기능을 갖춰 편안하면서도 아름다운 베이스 메이크업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 헤라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은 헤라의 철학과 기술력이 결합된 제품으로 서울리스타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피부를 뽐내며 자신감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30g, 7만원.

Culture Collaboration

트렌드 리더 헤라는 서울리스타가 쫓는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를 빠르게 포착해 브랜드와 접목하는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왔다. 트렌드를 창조하는 선구적 크루들과 헤라가 함께한 컬러 캠페인 히스토리.

with JAYBAEK COUTURE



블랙 쿠션 쿠티르

헤라와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제이백 쿠티르가 만났다. 피부에 꼭 맞는 텍스처를 개발하려는 블랙 쿠션의 집념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맞춤 제작하는 단 한 벌의 오트 쿠티르 피스와 닮았다는 점을 각인한 콜라보레이션이다. 디자이너 제이백이 헤라 블랙 쿠션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플리츠 디테일 패카지 역시 큰 화제를 모았다.

with BANG SANG HO



위시 로켓

서울의 다양성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헤라와 사물을 다채롭고 개성 있게 표현하는 방상호 작가가 만난 콜라보레이션. 방상호 작가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키치한 시선과 비현실적 오브제, 화려한 색채를 이용해 재해석한 희망찬 서울의 모습을 선보였으며, 그 키치한 이미지를 제품 패키지에 담아 팬데믹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with AUFGLET



SCENE #000000

크로플이라는 색다른 메뉴를 선보이며 디지털업계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낸 아우프글렛과 쿠션만으로도 완성도 있고 감도 높은 스킨 룩을 연출할 수 있다는 메이크업의 새 지평을 연 헤라의 만남. 이 프로젝트는 작가나 뮤즈, 패션 브랜드가 아닌, 컬러와 뷰티가 협업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줬다.

with 39ETC



EXCAVATION

헤라 컬러 컬렉션의 감도를 더욱 높여준 39etc와의 콜라보레이션. 39etc는 독창적인 관점에서 남다른 감수성으로 새로운 오브제를 만들어내는 아트 디렉팅 팀으로 서울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해온 헤라와 만나 '나만의 취향을 발굴하고 편집해나가는 여정'을 담은 컬러 콜라보레이션 'EXCAVATION(발굴)'을 선보였다.



하루 종일 빈틈없는 도시 유해 환경 5중 방패막이

갈수록 강해지는 자외선(UVA, UVB)과 적외선뿐 아니라 블루라이트*, 미세먼지까지 도시 유해 환경의 자극에 맞서 피부에 5중 방어막을 씌워줄 설화수의 상백 라인을 소개한다.

editor **CHOI HYANG JIN**

하루 종일 빈틈없는
5중 피부 방어막

상백단**으로
강력한 피부 진정

12시간 빈틈없는
보습 밀착****

설화수 상백선크림, 상백톤업선크림, 상백선플루이드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와 과잉 피지, 강력한 자외선이 찾아왔다. 봄부터 여름까지는 자외선의 양이 늘어나는 데다 야외 활동도 잦아지기 때문에 자외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철저한 자외선 차단은 필수다. 설화수의 상백선케어 라인인 SPF50+/PA++++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와 동시에 적외선, 미세먼지, 블루라이트까지, 도시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5중 방어막을 형성해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스마트한 제품. 특히 성분인 멜라솔브™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함유해 바를수록 피부를 맑고 화사하게 가꿔주고, 더 새로워진 상백단**이 건조하고 예민해지기 쉬운 피부에 강력한 진정 효과를 선사한다. 피부가 촉촉한 상태로 12시간 지속될 뿐 아니라 피부 온도를 -4.2%*** 떨어뜨려 자외선에 지친 피부에 생기를 더해준다. 편안한 사용감으로 매일 바르기 알맞은 상백선크림, 자연스러운 핑크빛 톤 업 효과로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상백톤업선크림, 강력한 워터프루프 효과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효과적인 상백선플루이드 3종으로 구성되어 제형과 용도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것 또한 설화수 상백선케어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강점.

*in-vitro 결과 **상백단: 상백피, 삼심자, 백삼다당체, 오메, 황금 + 멜라솔브™
가온 후 대비 제품 사용 직후 기준 *피부 보습력 12시간 지속 인체 적용 시험 결과

review 1

★★★★★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아영**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정돈해줄 뿐 아니라 피부에 얇게 밀착돼 베이스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고 더 예쁘게 마무리되도록 도와준다. 피지량을 조절하고 피부 온도를 낮추는 효과 또한 상백선 케어 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review 2

★★★★★ 뷰티 콘텐츠 디렉터 **윤휘진**
“다 쓰기 전에 구매해 쟁여놓는 아이템. 수많은 선크림을 써봤지만 상백선크림만큼 발랐을 때 피부가 촉촉하고 답답하지 않으며, 밀리거나 들뜨지 않는 제품은 만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피부가 하루 종일 편안한 최고의 선크림이다.”



1 설화수 상백선크림 SPF50+/PA++++ 50ml, 9만원.
2 설화수 상백톤업선크림 SPF50+/PA++++ 50ml, 9만원.
3 설화수 상백선플루이드 SPF50+/PA++++ 50ml, 6만원.

홈 케어로 완성하는 수분 볼륨 리프팅

에스테틱의 리추얼을 그대로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제품을
선보여온 홀리추얼이 피부를
쫀쫀하게 끌어올리고 수분으로
탄탄하게 채워 볼륨 리프팅
트리트먼트를 받은 듯한 효과를
선사하는 프로 리프팅 앤 퍼밍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editor **CHOI HYANG JIN**





홀리추얼 프로 리프팅 앤 퍼밍 프로그램.
 1제 (퍼밍 파우더
 2g×8ea + 리프팅
 액티베이터 3.2ml×8ea)
 + 2제 (하이드로 볼륨
 부스터 80ml) 15만원.



홀리추얼 프로 리프팅 앤 퍼밍 프로그램

나이가 들수록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이 커지고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피부 탄력의 핵심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해 피부가 늘어졌다는 증거. 홀리추얼 프로 리프팅 앤 퍼밍 프로그램은 피부를 쫄쫄하게 끌어올려 주고 수분과 영양으로 채워 집에서 쉽게 전문적인 수분 볼륨 리프팅 관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첫 단계인 리프팅 마스크는 알부민, 레티날, 달팽이점액여과물 등 풍부한 탄력 강화 성분을 함유한 퍼밍 파우더와 리프팅 액티베이터로 구성되어, 이 둘을 섞어 바르면 고농축 리프팅 성분이 얇은 막을 형성한 뒤, 서서히 건조되면서 피부에 쫄쫄하게 올라붙고 확실하게 잡아준다. 두 번째 단계인 하이드로 볼륨 부스터는 진정, 탄력, 보습 성분을 함유해 수분으로 피부를 꽉 채워 탱탱하게 차오른 플럼핑된 피부가 완성된다.

당기고 채워주는
전문적인 수분 볼륨 리프팅 관리

2-STEP
리프팅 프로그램

10 min
홈에스테틱 솔루션

review 1

★★★★★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2 스텝 트리트먼트를 끝낸 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 마치 에스테틱에서 두 시간짜리 리프팅 마사지 케어를 받은 듯, 손끝으로 아들아들한 피부가 느껴지고 손안에 들어온 얼굴이 확연히 작아진 느낌이 든다.”

review 2

★★★★★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높은 물가에 에스테틱 가기가 망설여지는 요즘, 홀리추얼 프로 리프팅 앤 퍼밍 프로그램은 15만원으로 8회나 스페셜 스킨케어를 할 수 있다. 효과도 에스테틱 케어 못지않아 최고의 가성비 뷰티템으로 꼽을 만하다.”

review 3

★★★★★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경주**
 “피부를 확실하게 조여주는 스텝 1 리프팅 마스크의 효과도 놀랍지만, 스텝 2 수분 볼륨 단계에서 사용하는 하이드로 볼륨 부스터가 그야말로 물건이다! 바르는 즉시 시원한 수분감이 느껴져 열감이 오른 얼굴에 바르는 즉시 쿨링 진정 효과를 볼 수 있어 따로 구매해 바르고 싶을 정도.”



메이크업 '착붙' 선크림

번거로운 외출 준비를 간편하게 만들어줄 선크림이 등장했다.
바로 프리메라 리페어링 세라캡슐 UV 프로텍트 톤업 프라임! 베이스 메이크업의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여 사용 후 쿠션만 발라도 완벽한 피부가 완성된다.

editor **CHOI HYANG JIN**

'쿠션 부스터'
완성도 높은 메이크업

메이크업
밀착력·지속력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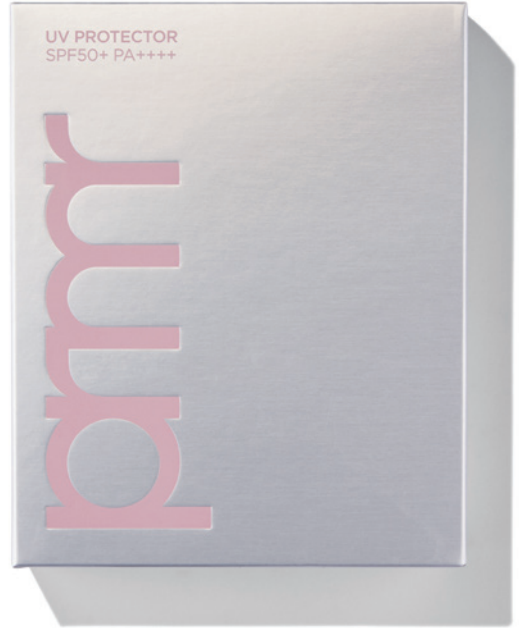
**피부 톤을 화사하게,
결광 톤업 선크림**

프리메라 리페어링 세라캡슐 UV 프로텍터 톤업 프라이밍 SPF50+/PA++++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점은 5백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충분한 양을 바르면 하얗게 들뜨거나 유분이 과해 베이스 메이크업이 밀리고, 피부가 금세 번들거린다는 것. 프리메라 리페어링 세라캡슐 UV 프로텍터 톤업 프라이밍은 이런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준다. 피부 표면과 유사한 스킨-핏 피그먼트가 메이크업의 밀착력을 90.7%나 높여주고, 피지 흡착 파우더가 과도한 유분을 컨트롤해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무려 2배*나 늘려주기 때문. 여기서 끝이 아니다. 72시간** 지속되는 보습력에 바르는 즉시 피부 투명도와 윤기를 개선***하는 데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브라이트닝 효과를 발휘하고, 씨드펩타이드와 세라캡슐이 피부 장벽을 강화해 바르면 바를수록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로 바뀌준다. 피부 속부터 건강하고 환하게 바뀌며 쿠션을 부스팅해주는 한마디로 만능 자외선 차단제다.

*메이크업 지속력, 쿠션 단독 사용 대비 8시간 후 피부 톤 변화를 비교 시험
시험 기간: 2023년 10월 13일~11월 20일, 시험 대상: 25~49세 여성,
시험 기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주)
**시험 기간: 2023년 10월 13일~11월 20일, 시험 대상: 25~49세 여성,
시험 기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주)
***투명도·윤기: 자가 스코어링(직후)

프리메라 리페어링 세라캡슐 UV 프로텍터 톤업 프라이밍 기획세트.
리페어링 세라캡슐 UV 프로텍터 톤업 프라이밍(40m×2, 10ml×2),
퍼펙트 오일 투 폼 클렌저 30ml, 6만8천원.



review 1

★★★★★ <마리올레> 뷰티 에디터 **김상은**
“피지를 컨트롤해주는 자외선 차단제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면 얼굴이 버석거리는 느낌이 들며 금세 건조해지곤 했는데, 이 제품은 다르다. 과잉 피지를 잡아주어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되면서도 속은 촉촉해 피부가 하루 종일 편안하다.”

review 2

★★★★★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쿠션 하나만 발랐을 때와 프리메라 리페어링 세라캡슐 UV 프로텍터 톤업 프라이밍을 바른 뒤 쿠션을 덧발랐을 때, 피부의 윤기와 화사한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 괜히 쿠션 부스터라 불리는 게 아닌 듯.”

review 3

★★★★★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미경**
“핑크빛 포물러가 피부에 얇게 밀착해 순식간에 피부가 화사하게 톤 업이 된다. 얇게 발라도 커진 모공까지 커버돼 이 제품 하나만 발라도 매끈하고 맑은 광을 내뿜는 예쁜 피부가 완성된다. 이 위에 글로우 쿠션을 바르면 피부에서 놀랄 정도로 광채가 난다.”

issue

Healthy Pleasure!

지난해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꼽힌 '헬시 플래저'가 점점 더 많은 공감을 얻으며
다이어트, 더 나아가 건강관리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editor **LEE SUNG JIN**



길티 플레저? 헬시 플레저!

“만년 다이어터지만, 퇴근 후 먹는 치맥은 멈출 수 없는 길티 플레저!” “피지를 짜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피지를 손톱으로 짜는 것이 저만의 길티 플레저예요.”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불러일으키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난 쾌락을 안겨주는 길티 플레저. 특히 다이어트나 몸매 관리, 피부 관리에 집중하는 여성들에게는 꽤 익숙한 단어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지난해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꼽히며 급격하게 트렌드로 떠오른 ‘헬시 플레저’다. ‘죄책감이 드는’이라는 뜻의 단어 대신 ‘건강에 좋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데에서 알 수 있듯, 행복하게 건강이나 몸매, 피부 등을 관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이어트에서는 극한의 식단 관리나 죽어도 하기 싫은 운동 대신 재미를 가미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SNS에 익숙한 세대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몸매 관리의 흐름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해피 다이어트

웃이 점점 얇아지는 요즘,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본격적인 노출의 계절을 앞두고 그동안 잘 숨겨온 군살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 매년 봄마다 굵거나 맛있는 샐러드를 씹으며, 또 죽기보다 싫은 운동을 억지로 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면 올해는 좀 다르게 몸매 관리를 해보자. 헬시 플레저의 흐름을 타고 즐기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니.

가장 큰 변화는 먹는 것을 절제하는 대신 ‘잘’ 먹는다는 것이다. 어다행대(어차피 다이어트할 거라면 행복하게 다이어트한다)를 추구하는 MZ세대를 겨냥한 저칼로리 음식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니 고르기만 하면 된다. 저당 간식이 대표적. 초콜릿 과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은 물론 소주를 비롯한 주류까지, 당을 줄인 음식이 더 늘어나며 다이어터의 마음과 식단이 한층 풍요로워지고 있다. 바이탈뷰티의 메타그린 시리즈처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역시 꾸준히 인기를 더해가는 중. 특히 새롭게 출시되는 메타그린 골드 플러스는 체지방 감소 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 상승 억제와 혈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일 원활한 대사 리듬을 완성한다. 홀리추얼의 미라클 타임 역시 동양의 12가지 원료를 배합해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효과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자기 전 혹은 낮에 물에 타서 마시지만 해도 몸이 한층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이 공통된 후기다.

1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플러스 체지방·혈중 콜레스테롤·혈행·혈당 등 현대인의 대표적 건강 고민을 위해 카테킨과 바나바인추출물, 은행잎추출물이 균형 있게 조화된 프리미엄 대사 멀티팩, 620mg×2정+350mg×1정, 6만5천원. **2 홀리추얼 미라클 타임** 감초, 건지황, 계피 등 12가지 원료를 에스데릭 전문가의 노하우로 배합해 몸을 가볍게 만드는 고농축 액상 콘센트레이트 이너 뷰티 차, 10g×20포, 8만6천원.



Nutritional Trends

먹는 즐거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107.7%

2024년 1월, CU의 저당 디저트 매출이 전월에 비해 107.7% 늘어났다. 출시 열흘만에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넘긴 저당 아이스크림 열풍이 불러온 효과다. 당달아 저나트륨, 저칼로리 상품들도 인기를 끄는 중이다.

1,533
tonne

물을 마시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음료 대신 차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며 관련 시장도 급증하고 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액상 차 소매점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류 수입량이 1,533톤인데, 이는 2020년 대비 11.6% 늘어난 수치다.

7M+

먹는 다이어트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바이탈뷰티의 메타그린 라인은 2022년에 이미 누적 후기 2만 건, 누적 판매량 700만 개를 돌파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다. 응용법이 간단하고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 부작용 사례가 많아 꺼려지는 여는 다이어트 약에 비해, 녹차에서 추출한 건강에 이로운 카테킨과 엄선한 부재료만 사용해 안전하다는 것도 인기 비결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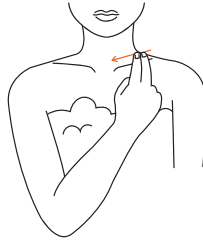
Lymphatic Therapy

샤워하면서 하는 효과적인 림프 마사지! 모든 단계는 적당한 압력으로 10~15회 반복한다. 갈사 비누를 활용하면 피부 자극 없이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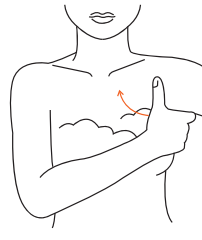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 숙면

헬시 플래저의 큰 축 중 하나가 바로 피로 관리, 즉 잘 쉬는 것이고 잘 쉬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숙면이다. 사실 잘 자는 비법은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다. 낮에 햇빛을 받으며 30분가량 산책하고, 낮잠은 30분 이상 자지 않으며, 잠들기 한 시간 전부터 TV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늦은 저녁에는 격한 운동이나 술을 피할 것. 하지만 지키기 쉽지 않은 이 철칙에 지친 사람들은 이제 숙면을 위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2년간 3백만원이 넘는 매트리스를 산 사람이 15.8%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종아리 마사지기처럼 목적인 몸을 가볍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돕는 보조 수단도 자주 언급되는데, 특히 갈사 마사지기의 인기가 심상찮다. 림프샘을 자극해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경직된 근육을 푸는 효과로 피부 개선과 숙면을 불러오기 때문. 이제까지 얼굴만 마사지했다면, 앞으로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스킨유의 갈사비누로 쇄골 근처의 림프샘까지 마사지해보길 권한다.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거품으로 딱딱하게 굳었던 몸이 이완되어 한결 가벼운 몸으로 숙면할 수 있을 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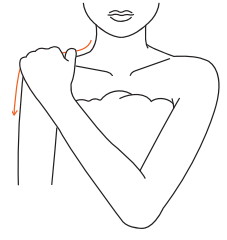
스킨유 딥 오일 케어 스크럼 갈사비누 들고래 형태의 갈사 비누로 온몸 구석구석 시원하게 마사지할 수 있다. 묵은 각질을 깔끔하게 없애 피부를 속 당김 없이 건강하게 가꿔준다. 120g×2개, 3만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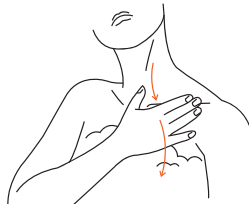
1 심호흡을 깊게 5회 한 뒤 쇄골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쓸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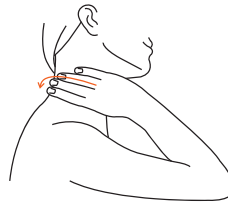
2 겨드랑이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쓸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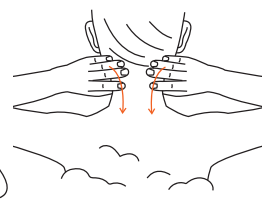
3 쇄골부터 겨드랑이까지 쓸어내린다.



4 목 앞에서 가슴까지 쓸어내린다.



5 목 옆부터 목덜미까지 쓸어내린다.



6 목덜미를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린다.





즐기면서 하는 운동

운동은 하러 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한 거라는 얘기가 있다. 그만큼 하기 싫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일 터. 하지만 이제 떨어지지 않는 발을 억지로 움직여 운동하러 나서야 하는 시대가 지나고 즐기면서 운동하는 시대가 왔다.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고 있기 때문. 지치지 않도록 의욕과 재미를 불러일으킬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하는 팀 스포츠가 각광받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러닝 크루다. <나 혼자 산다>에서 기간 84가 마라톤에 도전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뛰었듯이 다양한 앱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러닝 크루를 구해 한강 공원 등지에서 달리는 이들이 늘어나는 중. 자전거 동호회나 스레기를 주우며 걷는 플로깅 등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보디 프로필 도전을 함께 할 사람을 구하고, 운동 과정과 식단을 인증하며 결국 꿈을 이뤄낸 이들도 있다. 혼자 하는 운동이 편하고 익숙한 사람이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준비를 피해 도망가는 상황처럼 단계별로 미션을 수행하며 게임하듯 운동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운동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다.

PHOTOGRAPH: www.gettyimagesbank.com(인물)·오현성(제품).
ILLUSTRATION: 이혜은

Fitness Apps

운동을 즐기게 해줄 앱.



런데이

전문가의 음성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앱. 초보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부터 마라톤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코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기록이나 배지를 제공해 동기를 부여한다. 누적 다운로드 수가 3백만 회를 넘어섰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좀비런

좀비를 피해 달리는 상황을 설정해 즐기듯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앱. 천천히 걸으면 좀비가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려 살기 위해 달리게 된다고. 좀비가 가까이 왔는데도 도망치지 않으면 그들에게 잡혀 열심히 모은 아이템을 잃게 되니 주의!



챌린저즈

스쿼트하기, 홈 트레이닝 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앱. 챌린지 전 돈을 걸고 실천한 만큼 돌려받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즐거운데, 누적 거래액이 무려 4천4백61억원에 달한다고, 이거 장난이 아니다.

STYLE OUR HOME

〈메종〉 에디터들이 추천하는 트렌디한 인테리어 리빙 아이템.

editor 〈메종〉 에디터



Flamboyant Décor

미니멀리즘에 대한 반작용일까? 타오르는 불꽃 모양의 고딕 건축양식 플라방부아양에서 비롯되어 화려하고 과시적인 스타일도 미니멀리즘과 공존하고 있다.



1 메종다다 이반이반 높낮이가 서로 다른 등받이와 앞뒤 면이 다른 두 가지 색상의 패브릭을 사용해 감각적인 의자. **2 위트만 체스** 짙은 버건디 색상과 대조되는 블루 컬러로 구성된 체크무늬 러그. 체스판을 연상시키는 패턴으로 공간에 경쾌한 리듬감을 더한다. **3 셸레티 바르크 미러 시걸** 바다에 누워 있는 여인을 담은 거울이다. 클래식한 금장 장식이라 베르사유궁전 같은 화려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다. **4 티파니 크레스트 컬렉션** 17세기 후반 한 가문의 문장에서 영감을 받았다. **5 뱅앤올룹슨 한정판 베오사운드 A9** 그라미 어워드 수상 베이스티이자 실험적인 음악가인 모노네온과 협업해 탄생했다. **6 로쉐보보아 볼볼 세미 프리오** 포르투갈 리스본의 전통 색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러그. **7 보치 38.6V 플로어** 긴 스탠드에 6개의 핸드 블로잉 유리 전등갓이 달린 플로어 조명이다. **8 셸레티 서커스 아밋주르 루시** 서커스 텐트를 발로 힘껏 들고 있는 듯한 여인의 모습을 재치 있게 담은 디자인의 테이블 조명. **9 바카라 제니스 플루, 쥘페 부아 플루 상들리에** 투명, 핑크, 반투명 크리스탈이 다양한 오너먼트와 어우러져 있어 눈부시게 화려한 디자인이 특징. 필립 스타크이 디자인했다. **10 메종다다 디스 이즈 낫 어 셸피 포트레이트** 고대 조각상에 보라색 봉대를 감은 듯한 형태의 오브제. 5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다. **11 보치 28.13** 다양한 컬러를 입은 13개의 핸드 블로잉 유리 전등갓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들리에 형태의 조명. **12 바카라 봉 주르 베르사유** 우아한 형태의 전등갓과 스탠드 하단의 다채로운 컬러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빛이 특징인 테이블 조명. **13 지노리 1735 엘리펀트 머그 워드 커버** 양중맞은 꼬끼리 손잡이가 달린 머그컵. 두께가 달라 있어 차를 장시간 따뜻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으며 금장 디테일이 포인트다. **14 콜렉션 더 가든스**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과 잎새로 이루어진 벽지로 맛있는 벽면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다브에서 판매. **15 파올라렌티 메타모르포시** 만개한 꽃잎이나 활기찬 해초의 표면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특징. 페르난두 & 움베르투 캄파나 형제가 디자인했다. **16 포르나세티 아이스 버킷 카메이** 포르나세티만의 독창적인 드로잉이 새겨진 아이스 버킷이다.





10



11



12

Minimalism Essentials

단순한 형태와 팔레트가 자아내는 미니멀리즘의 정취. 과도한 장식을 배제하고 다양한 음영과 심플한 직선 위주의 형태를 구현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1 데파도바 브렌치 오브 메이플 단단한 단풍나무와 가죽 스트랩 소재,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결합한 옷걸이. **2 씨씨타피스 모아레 러그** 나뭇잎의 자연스러운 패턴을 재해석해 만든 러그. 티베트 장인의 수작업으로 완성했다. **3 세락스 루돌프 커피 테이블** 빈센트 반 듀이센이 시각적으로 가장 편안한 비율과 선을 찾아 디자인한 테이블. **4 프리츠한센 AJ 트롤리** 삼각형 디자인으로 건축적 에지를 더한 이동식 사이드 테이블. 집에서 바 카트로 활용하기 좋다.

5 몬타나 셸피 미러 군더더기 없는 직선 라인이 돋보이는 직사각 거울. **6 데파도바 소지** 종이를 전통 방식으로 결합한 삼나무 패널에 한지를 붙여 제작한 룸 디바이드. 135cm 적당한 높이로 방 안에 빛과 바람을 끌어들인다. **7 구비 에픽 다이닝 테이블** 감프라테시가 그리스 기둥과 로마 건축에서 영감 받아 디자인한 테이블. 트래버틴 대리석에 조각적인 형태가 더해져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8 드세데 DS-705 안쪽으로 균형 잡힌 팔걸이와 부드럽게 떨어지는 유선 라인이 돋보이는 소파. 크바드랏 직물로 마감했다.

9 타임엔스타일 발세리제 세이즈롱 페터 훔토어가 스위스 발스 온천을 위해 디자인한 체어. 인체공학적 라인이 특징이며, 숙련된 장인이 나무에 증기를 가해 만드는 전통 방식을 따른다. **10 허먼밀러 벨스 소서 버블 펜던트** 유기적인 라인이 돋보이는 조지 벨스의 펜던트 조명.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선사한다. **11 비엔비 이탈리아 화이트 라인스 윈드스크린** 가죽 소재의 스크린으로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스크린. 책상이나 침대 옆에 배치하기 좋다.

12 제르바스나 다엔 사이드보드 원목과 친환경 가죽으로 마감한 사이드보드.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13 구비 씨 체어 케인 소재의 좌판과 월넛 프레임으로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다이닝 체어. 마르셀 가스코인이 1947년에 디자인한 의자다. **14 세락스 루돌프 소파** 직선 위주의 단순한 프레임과 쿠션 디자인이 돋보이는 빈센트 반 듀이센의 소파. 2~3인용과 1인용 소파 두 가지 사이즈로 선보인다. **15 잉고마우러 누누** 나뭇잎을 표현하는 황금색 종이와 반사돼 따뜻한 빛을 자아내는 스탠드 조명. 스테인리스 스틸 베이스가 흔들리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는다.



13



14



15

건축이 아름다운 카페

카페의 완성이 커피 맛이라면, 공간의 완성은 아름다운 건축이다. 맛있는 건축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카페를 모았다.

editor **KIM SEONG YEOP**
〈매종〉 어시스턴트 에디터

삶의 세 번째 공간, 공간테리

오늘날 삶에는 꼭 필요한 공간이 있다. 첫 번째는 '집'이고, 두 번째로 '일터'가 있다면,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휴식과 일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공간. 카페 공간테리는 커피 한잔으로 연결되는 교류의 가치를 담은 곳이다. 대전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마주 보는 두 개의 건물이 하나로 연결된 듯 이어지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마치 종이를 말아 찢듯 벽과 바닥의 경계가 사라진 형태로 산과 하늘을 품은 동지처럼 느껴진다. 건물 사이길 끝에는 계룡산으로 오르는 산책로가 있다. 건물을 짓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이 오갔던 산책길이다. 나온중 건축가는 이 자리에 들어설 건물이 산책로를 가로막기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원했다. 일상과 자연이 연결되는 교차점에 건물이 서 있지만 지금까지 이어졌던 동선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공간테리는 사람과 사람, 건축과 자연을 연결하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주소 대전시 유성구 수통골로9 @o.ganteri.official

비워진 나를 채우는 곳, 목리45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목리459에 소재한 카페 목리459는 지명을 그대로 이름으로 가져왔다. 예부터 먹을 만들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했던 옛 선인의 마음을 생각하며, 한 폭의 수묵화를 그리는 정성으로 지은 건물이다. 입구는 물론 공간 전체가 먹색으로 어둡게 채색되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자신을 덮치는 낯선 어둠이 차차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이색적인 경험을 의도했다.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비워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비움의 공간'으로 명명하고, 가구나 오브제 대신 사람들의 경험으로 공간이 채워지길 바라며 장식을 최소화했다. 명상적인 이 공간에서는 자연을 잠시 빌린다는 겸허한 자세로 사계절의 빛을 만끽할 수 있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목리459 @mukri459_official



꿈과 태양이 만든 풍경, 디스케이프

꿈의 풍경(Dream of Escape)을 뜻하는 카페 디스케이프는 건축주가 그린 한 장의 그림을 재해석해 만들었다. 평면 위에 그려진 선과 면을 삼차원의 공간으로 입체화하는 과정에서 이곳이 그림처럼 누운 군가의 낙원이 되길 바랐다. 인적이 드문 오래된 기차길 옆, 파란 하늘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붉은 땅에 주목했고, 그 땅은 매끄럽고 반듯한 붉은색 건물로 이어졌다. 벽의 질감에선 흙처럼 거칠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실내로 이어지는 붉은 벽은 높고 긴 창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밝게 물들고, 빛은 마치 형광펜으로 그은 듯 선명하게 새겨진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97 @dscape_thecafe



자연과 뒤섞인 놀이, 논스페이스

땅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전은 과거 가장 먼저 모내기를 하고 가장 먼저 쌀을 수확하는 곳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고령화와 인구 유실로 그 명성을 잃었다. 유창길 건축주는 이런 옛 기억을 복원하는 건물을 구상했다. 논밭의 수로처럼 벽으로 이뤄진 건물, 벽돌로 직조된 공간 사이사이 비어 있는 곳은 나무와 들, 물과 하늘로 채웠다. 실내와 실외, 사람과 자연이 같은 건물에서 숨쉬는 것이다. 불룩을 쌓은 듯한 독특한 건물 형태는 논과 산의 높낮이처럼 자연스러운 자연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내부도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 벗짚 콘크리트가 마감했다. 벗짚과 노출 콘크리트가 뒤섞인 천장은 자연적이면서도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분절된 각각의 공간에서 마음껏 자연을 누리면서 전시와 콘서트, 클래스와 팝업스토어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주소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동산로395번길 139-12 @nonspace_2000





아름다움의 가치를 공유하는 아모레 뷰티 파크

지금의 K-뷰티가 있기까지 그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해온 아모레퍼시픽의 노력과 결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아모레 뷰티 파크로 초대한다.

editor **LEE SUNG JIN**





오래된 기업은 많지만, 그간 쌓아온 업적을 간직하고 그 속에서 가치와 교훈을 찾으며 더 나아가 역사적 추억을 모두와 공유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단순히 상품 판매를 위한 곳이 아니라,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공유하고 나누는 데 목적을 둔 거대한 전시장을 운영하는 기업 역시 손에 꼽을 정도다.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아모레 뷰티 파크는 바로 이런 가치를 실현한 공간이다.

아모레퍼시픽 팩토리 투어는 아모레 뷰티 파크 내 팩토리, 원료식물원, 아카이브를 둘러보며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온 아모레퍼시픽의 미의 여정을 소개한다. 먼저 기업의 제품 생산 철학과 생산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인 팩토리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인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식물의 가치를 존중하고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며 미래의 식물 자원을 수집, 관리, 보존하는 사회 공헌의 장인 원료식물원에는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1,62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전시하는 아카이브는 기계 설비와 광고 홍보 자료, <향장> 등 각종 간행물은 물론 직원들이 입었던 유니폼과 회사 사이니지(signage) 등 8만여 건의 기업 사료로 채워져 당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회고하는 시간을, 젊은이들에게는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Current Exhibition

아모레퍼시픽 서성환 100년 | 1924-2024



현재 아카이브에서는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선구자 고 서성환 아모레퍼시픽 선대 회장의 삶과 도전 정신을 기리는 <아모레퍼시픽 서성환 100년 | 1924-2024>展이 열리고 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빛어낸 제품과 고객 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마케팅 전략으로 기업의 성공 신화를 일군 시대의 개척자, 서성환 선대 회장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다. 국내 화장품 업계의 판도를 바꾼 아모레퍼시픽 도전의 역사, 그 과정에서 브랜드와 기업을 단연 돋보이게 했던 디자인 헤리티지, 산업계를 놀라게 했던 혁신적인 광고 마케팅의 역사, 서성환 선대회장이 평생 추구했던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되었고, 1955년에 취득한 국내 1호 화장품 제조업 허가증, 1961년에 작성한 연구 일지 등 흥미로운 자료가 가득하다.

- 전시 기간** 2024년 12월 27일(금)까지
- 전시 시간** 매주 월~토요일, 10:00~16:00(사전 예약제), 일요일·공휴일·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관
- 관람·주차** 무료
- 장소** 아모레퍼시픽 뷰티 파크(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37 아모레 뷰티 파크)
- 예약** 아모레퍼시픽 팩토리 투어 공식 홈페이지(tour.amorepacific.com)
- 모바일 앱** 'AFT 가이드' 무료 제공
- 전시 해설**

딱 내 에센스

피부 분석 결과에 맞춰 최적의 효능과 내가 원하는 제형으로 만든
나만의 에센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아모레퍼시픽의 맞춤 에센스, 비스포크 에센스를 소개한다.

editor **LEE SUNG JIN**



주변인들의 권유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추천받은 제품이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는 사람마다 피부와 라이프스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써봐도, 좋다는 것을 추천받아봐도 도통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 권하는 브랜드가 바로 커스텀미다. 커스텀미는 시로 개개인의 피부를 분석해 내게 꼭 맞는 뷰티 라이프 솔루션을 제안하는 브랜드로, 아모레퍼시픽이 78년에 걸쳐 쌓아온 노하우와 1백만 건 이상의 피부 데이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에센스를 선보인다. 내게 꼭 맞는 제품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과정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각 에디터들의 에딧샵 속 커스텀미 배너를 클릭해 사진을 촬영하면 피부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고, 이어 피부 고민이나 라이프스타일, 취향 등에 관한 설문에 응한 뒤 선호하는 제형과 라벨을 고르면 끝. 이 분석을 토대로 아모레퍼시픽이 필요한 두 가지 효능을 찾아내고, 최적의 비율로 배합한 뒤 계절이나 생활 습관에 맞는 내가 원하는 텍스처와 결합해 내가 택한 라벨을 부착한 용기에 담아준다. 도출할 수 있는 조합의 수가 총 18,400개에 이른다고 하니, 쌍둥이라 할지라도 나랑 똑같은 제품을 갖게 될 가능성은 희박한, 그야말로 진정한 나만의 에센스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의 기술력으로 찾아낸 1,800여가지의 마이크로바이옴 중 특화된 고효능 성분만을 엄격하게 선별했고, 에센스 한병 당 최대 170억 마리*가 포함되어 피부 기초 체력이 다져지고 밸런스가 최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제품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만든 신선한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BESPOKE(이니셜)_T7L3(피부 고민)_13(제형)_P32F(시크릿 코드)로 부여되는 나만의 뷰티 코드도 특별한 기분이 들게 한다.

*리커버리핏 바이옴 균수에 해당



CUSTOM.ME : Bespoke Factory

내 피부에 딱 맞춘 나만의 에센스를 만드는 방법, 의외로 쉽다.



에딧샵 접속
각 에디터들의 에딧샵 속 커스텀미 배너를 통해 피부 진단과 에센스 제작이 가능한 사이트에 접속한다.



이미지 피부 분석
맨 얼굴을 촬영해 흉반, 모공 등 현재 내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문진
피부 고민이나 현재 상태 등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문진에 응한다.



제형 선택
날씨나 개인적 취향 등을 고려해 선호하는 텍스처를 고른다.



라벨 디자인
내 이니셜 등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고 선호하는 색으로 라벨을 디자인하면 나만의 에센스 만들기 끝.

A-ditor Loves

에디터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경험을 토대로 좋은 제품을 엄선해 판매하는 에딧샵.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애착이 가는 것은 분명 있을 터. 에디터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제품을 물어봤다.

editor **LEE SUNG JIN**



나를 빼놓고 이너뷰티를 논하지 말라!

A-ditor 황**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피부 챙기는 데에는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구미만 한 게 없죠.”



#탄력끌어올려

#예뻐지는간식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콜라겐을 보충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간식. 국내 최초로 피부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에 AP콜라겐호소분해펩타이드, 비오틴,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비타민, 이 다섯 가지 영양소를 담아 아름다움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준다. 크림슨 포도 맛에 식감이 쫄득해 입이 심심할 때나 졸졸한 오후에 먹기 딱 좋은 제품.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구미. 40g×5개, 2만5천원.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멋지게 돈 버는 육아맘!
A-ditor 김**

“최강 보습력과 나쁜 성분은 쏙 빼 착한 바디
제품으로 온가족 피부를 촉촉하게!”



#국민바디로션 🇰🇷

#특허세라마이드캡슐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을 빼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다져줄 특허세라마이드 캡슐을 담아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저자극 비건 로션. 바른 지 일주일 만에 손상된 피부 장벽이 87% 회복되고, 보습 지속력이 100시간에 이르는 것을 증명했다. 3초마다 한 개씩 팔리고 누적 판매량이 1,000만 개를 돌파한, 그야말로 국민 바디로션!

일리온 세라마이드 아토티 로션, 528ml, 3만2천9백원.



평범한 직장인에서 N잡러로!
A-ditor 전**

“완벽한 메이크업은 훌리추얼 래디언스 리설페이싱
필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각질아웃광채업

#빛나는피부변화 ✨

불필요한 각질 제거, 피부결 정돈, 피부 톤 개선 효과를 보이는 1단계와 광채 지속, 피부 진정, 영양 공급 효과를 발휘하는 2단계 패드로 구성된 프로페셔널 필링 트리트먼트. 필링제에 피부가 자극받을까 염려되어 선뜻 구매하기 망설여진다면, 에디샵에서만 판매하는 6매 세트를 구매해보길. 머지않아 12매짜리 풀세트를 구매하게 될 것.

훌리추얼 래디언스 리설페이싱 필 6매. (3ml×2ea)×6매, 2만5천원.



코덕에게 에디샵은 천국!
A-ditor 손**

“플러핑 효과에 지속력까지, 나들이 갈 때
레티놀 볼륨 립 세럼을 바르면 기분이 좋거든요.”



#탱탱한입술자신감 🗨️

#리얼볼륨오버립

아모레퍼시픽 최초의 레티놀 립 케어 제품, 입술을 수분으로 채워 사용 직후 7.8%, 2주 후 14.7%, 4주 후 15.7% 볼륨이 증가되는 리얼볼륨 업 립 세럼이다. 고밀도 젤의 높은 밀착력으로 입술에 윤기를 더하고, 식물 유래 유사 콜라겐이 들어 있어 쓰면 쓸수록 탄력이 더해진다.

프리메라 레티놀 볼륨 립 세럼, 12g, 2만9천원.

TRUST



ME!

홀리추얼의 프로 리프팅 앤 퍼밍 프로그램을 써본 에스테티션 4인이 솔직한 소감을 들려줬다.

editor **LEE SUNG JIN**

홀리추얼 프로 리프팅 앤 퍼밍 프로그램.

1제 (퍼밍 파우더 2g×8ea + 리프팅 액티베이터 3.2ml×8ea) + 2제 (하이드로 볼륨 부스터 80ml) 15만원.

조혜리 원장 해리온 에스테틱

사용 직후 피부가 탱글탱글 차오르는 데다 쉽게 민감해지는 피부에도 걱정 없이 쓸 수 있어 저희 에스테틱 케어에도 도입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2단계인 볼륨 부스터를 바를 때 귓바퀴 뒤쪽의 유양돌기 림프까지 충분히 풀어주면 붓기가 속 빠질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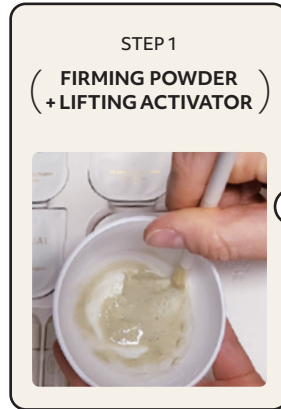
- #2030탄력케어
- #4050장벽케어
- #탄력리프팅프로그램



Q 모두를 위한 리프팅 제품



Q 집에서 전문가의 손길을 느끼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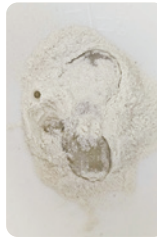
양시현 원장 엘리스 에스테틱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턱선이 올라붙고 광대뼈 앞쪽이 탕탕해졌어요! 하이드로 볼륨 부스터를 롤링해 림프 방향으로 마사지하며 광대뼈 앞쪽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바르면 얼굴에 볼륨감이 생길 겁니다.

#10min리프팅팩
#홈에스테틱리프팅

SMALL BEAUTY TALK

프로 리프팅 앤 퍼밍 프로그램을 전문가처럼 쓰는 비법이 있을까요?



#1 리프팅 마스크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듯, 여러 번 리터치하지 않고 한번에 목까지 이어 바른다. 건조한 부위나 주름진 부위가 먼저 마르므로 입가는 마지막에 바르는 것이 좋다.



#2 수분 볼륨 세럼
아끼지 말고 넉넉히 짜낸 뒤 가볍게 문질러 마스크를 녹인다. 수면 팩으로 한번 더 사용하면 다음 날 피부가 몰라보게 달라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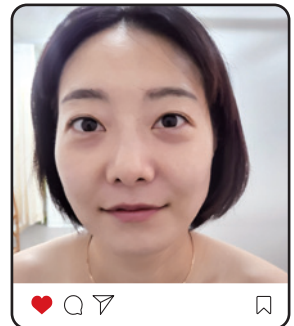
리프팅 마스크를 하는 동안 피부가 짝 올라붙었다가 수분 볼륨 세럼을 바르는 순간 마법처럼 쭈은 피부로 되돌아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배수현 원장 수애 에스테틱

전문 에스테션용 제품에서 볼 수 있던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여기서 느끼게 될 줄이야! 얼굴이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망설이지 말고 써보세요. 화를 거듭할수록 주름 부위가 차오르면서 동안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

#쉬운사용법 #강력한리프팅효과
#모두에게추천



이근숙 원장 경희홍 에스테틱

퍼밍 파우더와 리프팅 액티브에이터를 섞어 바르면 얼굴이 조이며 피부가 리프팅돼요. 하이드로 볼륨 부스터를 발라 마사지하듯 문지르면 피부가 쫀득해지고요. 피부 톤이 맑고 화사해지는 건 물론, 다음 날 아침에도 덜 건조해요. 🥰

#에스테틱급홈케어 #쫀득한피부
#환하고촉촉한효과

firming & lifting

2 step

home care

AMORE PACIFIC

아모레퍼시픽 모이스처 플럼핑 넥타 크림.
50ml, 15만원.

인체의 수분과 구성 성분이 유사한 왕대나무 수액과 피부를 플럼핑해 탄력을 높여주는 왕대나무 진액을 담아 수분으로 차오르는 듯한 수분 플럼핑 효과를 선사한다.



2

GOUTAL

구말 오드 아드리앙, 삐띠 셰리, 로즈 품퐁 핸드 밤.
각각 40ml, 4만8천원.

구말의 시그니처 향수인 오드 아드리앙, 삐띠 셰리, 로즈 품퐁의 향을 담은 핸드 밤. 밤 타입의 리치한 질감이지만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며 끈적임 없이 매혹적인 향과 보습감을 선사하는 핸드 케어 제품.



3

AMORE PACIFIC

아모레퍼시픽 트리플 디펜스 선 프로텍터 SPF50+/PA++++.
60ml, 8만4천원.

물방울이 터지는 듯 시원한 쿨링감을 선사하는 3중 보호막의 워터프루프 선블록. 지속 내수성 인체적용 시험까지 완료해 야외 레포츠에 딱!

EDITOR'S PICK

환절기의 건조함을 확실히 잡아줄 '촉촉' 아이템.

editor **CHOI HYANG JIN**

SULWHASOO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자음유액 퍼펙팅.
각각 150ml, 6만8천원/
125ml, 7만2천원.

진정 보습에 탁월한 자음보습단™에 당귀와 천궁을 18시간 동안 훈증해 모은 영양훈증수를 가득 담은 소프트 젤 타입 스킨과 크리미한 제형의 에멀전. 풍부한 수분과 영양 성분으로 건조한 피부에 충분한 보습감을 선사하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가꿔준다.

4



5

SULWHASOO

설화수 윤조립밤.
3g, 4만5천원.

인삼씨오일로 입술 컨디션을 개선하고 수분 불량을 더해 24시간 팽팽하게 가꿔주는 립밤.



6

HOLITUAL

홀리추얼 컨센트레이트 시그니처 크림.
50ml, 9만8천원.

연고같이 농축된 제형이 방패처럼 탄탄한 영양 보습막을 형성하는 토탈 안티에이징 크림.



HOLITUAL



II
Pro Lifting &
Firming Program

Hydro-Volume Booster
80 ml



I
Pro Lifting &
Firming Program
Firming Powder
2g

HOLITUAL

I
Pro Lifting & Firming Program
Firming Powder
2g

HOLITUAL

PRO LIFTING & FIRMING PROGRAM



